'흩겹짜리' 감정 자극 지양해야

기획특집 최근의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문학 경향

'무궁화 꽃…'등 극단으로 치우친 민족주의 독존론적인 국수주의 관점 탈피해야

얼마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일전쟁란 당시 부등하고 긴사한 장군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원균을 새롭게 조명한 소설이 나왔다고 한다. 우리의 통념에 원균은 이순신을 모함하고 왜군과의 전투에서는 도망만 다녔던 비겁한 장군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소설에서의 원균은 어떤 다른 장군보다도 지략이 뛰어나고 충직한 장군으로 묘사되어 있다 한다. 그 작가의 말에 의하면 원균에 대한 그러한 묘사는 근거없는 상상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시의 시실에 입각한 해석에 의해서 라고 한다. 여기서 원균에 대한 역사적 사실 여부를 두고 논할 일은 아니다. 원균이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인물상과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난 극복의 '성웅' 이순신이라는 존재는 원균이라는 반대편의 간신이 있으므로 해서 더욱 빛났다. 그러나 원균이 사실상 알려진 바와는 다른 인물이었다면 그 대칭의 효과는 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칭을 가장 강력하게 믿고 나갔던 때가 박정희 군사정권이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이순신과 원균의 대칭이 만들어내는 효과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마 박정희였을 것이다. 그의 방식대로 이해되는 민족주의를 프로파간다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존재로 취택된 인물이 이순신이며, 원균은 그 프로파간다 효과의 배가장치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순신과 원균의 대칭 구조로 구성된 수많은 소설과 영화 및 다양한 기록물들이 만들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순신의 충절에 눈물 흘리고 원균의 기회주의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것이다. 이순신과 원균의 대칭구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박정희식 민족주의'가 연출한 '이순신 효과'에 끌려들어가 허구적 민족주의에 농락당한 셈이 되는 바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것의 쓰임새가 폭나 누추해지고 심지어 노골적인 호도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공화국이나 5공화국에서의 그런 호도는 민주적 기반이 허약한 권력일수록 민족주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유구한 전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건 일단 별로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호도의 과정과 목적이 노골적이기에 문제 파악도 쉽게 때문이다.

그러나 이즈음의 여러문학 경향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 문제는 좀 다르다. 소략히 살펴보자. 근자의 경우 이른바 베스트셀러라 부를지한 소설들을 꼽으라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원한 제국', '베니스의 개성상인'등을 친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소설들이 민족 혹은 민족주의라는 형상과 어떤 식으로 든 관계되어 있는 점이다. 이 소설들에서 분사되어 나오는 민족주의적 형상은 요즘 세계정세 즉 시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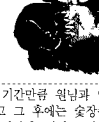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냉탁체제라고 이름하는 세계의 양극구조가 일거에 도태된 후 세계정세의 특징은 '세계화'혹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되는바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1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세계의 보편적 통합이라는 방법을 통해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것임을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 보편적 통합이 제대로 될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 통합의 기반인 보편성이라는 것이 각 개별국가 및 민족의 특이한 사정이라는 개별성을 제대로 감안하는 것이 각 개별국가 및 민족의 특이한 사정이라는 수단과 전배없을 때에 여러 충돌이 일어날 것과 그 와중에서 각 민족의 자기보존의 욕구가 드세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지금 지구 각 지역에서의 민족분쟁도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시만 우리 사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여러 부면에서 민족의 자기보존이라는 욕구가 민족주의라는 형식으로 내면화되어 기고 있는 바, 그 중 앞에 든 소설의 베스트셀러화도 바로 그런 것의 효과라 할 만하다. 그런데 통념이 빚어내는 다양한 감정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기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는 습지지 한장 차이라는 말도 그런 문제를 경고하는 대목이다. 또한 민족주의라는 표상만큼 극단적인 감정을 정당화시키는 기제가 없다. 그런만큼 이 민족주의라는 통념에 대해 접근과 통찰은 실로 신중하고도 복합적인 과정과 자세를 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컨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소설에서 민족주의문제는 대단히 위험하고 허위적으로 다루어진다. 단지 홍겹짜리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고 '발양'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기 때문이다. 독존론적인 민족주의 자세는 타기해야 할 것이자 고양시켜야 할 것이 아니다. 정세가 엄중해지고 민족의 향방이 모호해질 때일수록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족문제에 모든 전군 방법이 다 선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같은 소설을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성 욱
〈문학평론가〉

사회속의 윤회(輪廻)

옛날 어떤 고을의 원님은 절세미인을 아내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침 갑자기 아내가 사라져 버렸다. 원님은 아내를 백방으로 찾았다. 그러나 끝내 찾을 수 없었다. 몇해중만 아내를 찾아헤맨 원님은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날 원님의 친구가 찾아와 어느 산의 숲을 굽는 노인의 아내가 원님의 아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귀띔해 주었다. 원님은 불원천리 찾아가 그 여인을 찾아 보자마자 곧 자신의 아내임을 알았다. 원님을 보자 아내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고요한 달밤은 밤 불혼도 숲장수의 외침을 듣는 순간 따라와 버렸노라고. 원님은 기가 막혀 화도 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야기는 이렇다. 원님은 전생에 스님이었고 그의 아내는 그의 몸에 살던 이(蝨)였다. 어느날 스님은 바로 현생의 숲장수가 사는 산기슭이 내려다 보이는 법통은 언덕에서 쉬게 되었다. 그 때 자기 곁에 붙어있는 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수도중인 스님이기에 이를 죽일수가 없어 가만히 풀섶에 내려 놓았다. 그리고 스님은 길을 떠났다. 이는 마침 그 길을 지나던 멧돼지에 붙어 산하던 기간만큼 원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그 후에는 숲장수의 아내로 살아간 것이다. 원님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불교에서 인간사의 모든 일을 풀이하는 윤회사상을 보여주는 한 예화이다.

요즈음 우리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그저 한탄만 자아내는 한 사건을 접하고 있다. 어찌 자식이 부모를 둥산용 칼로 난자하여 살해하고 그 죽은 시신조차 불질에 휩싸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처절하게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없고 납득하기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떤이는 이번 한약상 부부 살해사건을 빝교의 윤회사상에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일을 이야기하는 모든 종류의 접근은 마저 불교도가 아닌 사람이 윤회사상을 그저 신기하게만 바라보듯이 '우째 이런일이'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법인의 패륜아적 기질과 '돈으로 자식의 학벌을 만들어주기 위한 부모의 잘못된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열을 가진 부모와 인간 망종의 패륜아가 생긴 곳은 이디인가. 다름아닌 우리의 사회다. 자식의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좋은 학벌을 사주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되었고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없도록 만드는 잘못된 교육제도가 있었다. 이제는 사건의 모든 근원을 따져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전적 했어야 할 것이었을에도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말이다.

〈박경화 記者〉

우리학교연구소

④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아·태지역 대학과 연구교류 활발
대학특성 고려 내실있는 활동 추진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최근의 지역 블럭화 추세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와 근접 지역에 대한 교류와 연구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연구소는 이러한 변화에 민감히 대처하기 위해 86년 10월 동북아연구원으로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동북아 지역의 제반 문제에 관한 학술연구와 국내외 학술교류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렇듯 발전을 거듭하던 동북아연구원은 최근 세계정세의 변화에 발맞춰 92년 3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연구소로 새롭게 탄생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 한정되었던 연구활동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 개편하기 위함이다.

아·태지역연구소는 현재 아시아지역 연구실, 태평양 지역연구실, 비교문화연구실, 사무국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신용철(문리대 사학과 교수) 아·태지역연구소 소장외 연구위원 24명과 자문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소의 활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연구, 남북한 연구,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및 교류증진,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교환, 연구 번역 및 외부기관과의 위탁연구, 연구 간행물 발간등 다양하다.

올해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이 연구소에서는 한학기에 2~3회의 포럼을 개최하고 시아지역 연구실, 태평양 지역연구실, 비교문화연구실, 사무국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신용철(문리대 사학과 교수) 아·태지역연구소 소장외 연구위원 24명과 자문위원 24명으로 구고 있는데 지난 5월 11일과 26일에 독일대사관 문정관과 베트남 대사를 초청하여 독일·베트남통일 이후의 통합과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또한 오는 6월 9일 호주 모쉬나 대학과 공동주최로 'APEC과 한국 호주의 관계정립'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모쉬나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7월에는 조선족과 한국인 교류를 위한 세미나, 8월에 중국 요녕대학과 공동주최로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10월에는 '아·태지역 공동체에 대한 삼국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일본대, 북경대와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용철소장은 "눈에 보이는 사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대학의 특성에 맞는 실용적이고 내실있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제정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연구만 하는 연구소 보다는 학부·대학원생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연구교류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연 記者〉

병역의무 이행과정 문답풀이 안내

병역의무 관계법령등 관계규정이 확대, 완화, 신설되는등 제도개선된 사항과 학생들의 병무상담 빈도가 많은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문답풀이 안내합니다.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각종 보도를 통한 홍보를 하고 징병검사를 받을때나 대학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할애 받아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설명하고 또는 대학 이동병무상담소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의 학구생활과 관련된 병역문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관계규정을 잘 몰라서 병무창을 직접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보고 안타까와 할때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입영을 하기위해 휴학을 했는데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곤란하다던지 시장 변경으로 휴학 또는 입영원을 취소하고 출입때까지 입영연기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몰라 고심하는 학생등 병역의무 이행과정과 관련이 많습니다.

문 : 대학재학생 입영연기와 대학 재학도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구체적 절차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입영대상자는 2년제 22세, 3년제 23세, 4년제 24세, 6년제 26세, 대학원 2년제 26세, 5·6학기제 27세가 되는 해에 죽업이 가능한 사람을 입영연기 하고, 대학 재학도중 입영을 원한 경우 가까운 시, 도 지방 병무청이나 본적지 또는 기주지 구, 시, 읍, 면, 동에 입영희망서를 기재한 입영희망원을 제출하면 가능한 본인의 원하는 시기에 입영조치 합니다.

다만, 그시기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입영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영 희망원 접수순이 따른 사람들로부터 입영하므로 3-4개월 이전 가능한 빨리 출원하면 유리합니다. 입영하기 위해 휴학할 경우에는 입영원 출원시등 우선권에 입영 시기도록 규정되어 있고 희망시기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 입영하기 위해 입영희망원을 출원 하였거나 휴학자가 다시 복학하여 재학생 입영연기를 받을수 있는 절차는?

-입영희망원 출원자는 제학증명서를, 휴학자는 복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영일 5일 전까지 취소원등 입영통지된 지방병무청장에 제출하면 24세까지 연입이 가능한 사람은 재학생 입영연기 처분 합니다.

문 : '94년 징병검사시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현역처분 대상은 대학·고졸자로 신체등위 1급~4급자와 고졸1급자이며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처분 대상은 고등학교 중퇴자로 신체등위 2급~4급자와 중졸 1급~4급자입니다. 제2국민역(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면제)은 중학 중퇴이하자, 2년이상 수형자(형기 합산 2년이상자 포함), 1년이상 형 선고자로서 27세 이상인자(단, 6년제 대학의 5년차 이상자 또는 대학원 재학중인자는 제외함), 고아·귀화자·외관상 명백한 혼혈아·신체등위 7급자등 1년 초과자

문 : '75년생부터 독자보충역 방위소집 제도가 폐지되는데 '74년 이전 출생자의 복무는?

-'72년 이전 출생자는 6개월, '73·'74년 출생자는 18개월을 방위소집 복무하고 '75년 이후 출생자는 독자보충역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전몰·순직한 군인 및 상이정도가 5급이상인 경·공상군인의 형제 또는 아들중 1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복무합니다.

문 : 금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입영하는 시기와 입영일자 결정 방법은?

-금년 징병검사를 받은 자는 95년 1월이후부터 입영합니다. 입영일자 결정은 징병검사를 받을때 작성하는 신상진술서에 원하는 입영희망시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등위, 입영희망시기, 학력, 직종하는 학과, 자격등을 고려하여 12월경에 입영부대와 입영일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결정된 입영부대와 입자는 웹서로 본인에게 통보해여 드리고 입영 명령서는 입영일 45일전에 발급되어서 늦어도 입영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단, 금년(19세)에 입영을 원하는 자는 금년에 입영이 가능합니다.

문 : 산업기능요원의 신설된 내용은?

-농·어촌 인력부족난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육성 비롯하여 원탁 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운전요원, 농업기계 사후봉사업 종사자등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이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감독을 받아 근무한다. 또한 농한기의 경우, 농·어민 후계자는 농외소득사업에 종기 제 운전요원은 소속업체의 생산목적 수행을 위해 종사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문 : 산업기능요원의 확대된 분야는?

-제조업의 경우 전자·기계등 10개 업종만 대상이 되었으나 전 제조업종으로 확대(소프트웨어 산업 포함)했으며, 과거 90개 기술 자격 종목에 한정되어 있던 산업기능요원 지원 자격을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 및 기능계 전종목 6백82개(시비스업 제외)로 확대 했습니다.

문 : 산업기능요원의 완화된 내용은?

-최근 연구요원등이 중·소기업 연구소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요원 3인(종전5인)이상만 확보하면 연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석사 전공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도 보충역에 한해 정부 연구요원으로 편입할수 있도록 완화하고 학위별 기술 자격 등급을 완화했습니다.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면허소지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전 등급이 모두 해당되며, 고졸이하자는 소형선박의 조종사도 포함 하도록 완화 했습니다.

학 력 별	종 전	개 정
대학(원)졸업자	기사 1급이상	기사 2급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기사 2급이상	기사 2급이상
대학3-4년 휴학, 중퇴자	기능사 1급이상	기능사 2급이상
고졸이하자 대학(전문대1-2학년)휴학, 중퇴자	기능사 2급이상(현역) 기능사보 이상(보충역)	기능사보 이상

문 : 상근 예비역의 복무대상, 복무기간, 지원절차등은?

-상근예비역 선발은 지원 또는 징집에 의하고, 지원자격은 '94년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3·4급 현역 입영대상자와 징집은 지원 부족시 징집순서상 신체, 학력등이 낮은자 부터 역 순으로 선발하며, 충복무기간은 30개월로 현역병 12개월은 복무한 후 18개월 방위소집에서 합토방위업무를 수행하고 기간을 마쳐면 현역병의 복무를 마치지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절차는 징병검사를 받은자는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장에서 원서교부 및 접수하고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시·구·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문 :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은?

-본인이 입영(소집)하면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자(징병검사 대상과 대학(원)재학생은 제외, 단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본인의 고정수입으로 생계유지자는 포함)로 아래기준 해당자. 출원서류는 병적을 관리한 지방병무청 관할 시, 군, 읍, 면에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 통보하여 줍니다.

재산(가구)	재산세 과세표준액 1,300만원 이하	월수입(1인당) 17만원 이하	부양비율	부양능력자 남자1인당	피부양자수 3인 이상
				여자1인당	2인 이상

부양능력자	구 분	부양능력자	자활기능자	피부양자
	남 자	20세-54세	55세-59세	그 이외의 자
	여 자	20세-44세	45세-49세	〃

문 : 전산 또는 전화등으로 병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병역의무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민원안내를 위하여 0331-257-2011번과 연결한 후 5555번을 누르면 지원이었, 장병검사 등 21개분야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신문의는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53-2(우편번호 440-151)로 본인의편익을까지 상세히 우편봉보하여 드리며 금년 5월 1일부터는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 : PC통신을 이용한 병무민원안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수원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민원안내를 위해 5월 1일부터 PC통신(천리안 하이텔)을 이용해 전국 어디에서나 병무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입영일자를 알고 싶을 경우, PC화면에서 병무항목을 선택한후 → 단체입무인 입영일자안내 선택 → 징병검사를 받은 지방병무청명(시울, 광주, 대전등)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현역병 및 방위소집등 입영일자를 알 수 있다. 또한 열린 병무마당(민원광장)을 마련 병무행정에 대한 시정사항,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등 병무행정 관련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한다.

수 원 지 방 병 무 청 장